

ODA 사업에서 적정과학기술의 중요성

이무하

에티오피아 아다마 과학기술대학교 농과대학 학장 겸 서울대 명예교수
michael81348@gmail.com

우리나라가 1996년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현재 34개국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가 개발원조위원회(DAC)를 통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 국민총소득(GNI)의 0.14%인 15억 5,100만 달러를 ODA 사업에 배정하여 OECD의 24개 DAC 회원국 중에서 16위, 뒤로부터 세면 아홉 번째로¹⁾ 적은 예산을 해외 지원에 투입한 나라였다. 정부는 이러한 오명을 벗기 위해 2014년 ODA 예산을 대폭 증액함으로써 약 2조 3,000억 원을 배정하였다. ODA 사업은 수혜국의 교육, 보건, 인구, 경제 정책 등에 대한 직접 지원을 하거나 프로그램 지원을 포함한 인도주의적 원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ODA 사업은 OECD의 DAC 회원국으로서 어차피 수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왕에 할 바에는 국민 세금을 의미있게 사용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많은 예산을 배정한 선진국들의 경우를 보면 오래 전부터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정책적 차원에서 긴밀히 개입하며 ODA 사업을 수행해 왔다. 이에 비해 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는 배정된 예산도 적을 뿐만 아니라 농업과 보건 분야의 현장 지원에 치중하고 있는 것 같다. 사업 내용도 상대적으로 부실하여 가까운 국민 혈세를 낭비한다는 눈총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면 농촌진흥청의 ODA 사업으로 KOPIA 센터라는 것을 운영하는데, 종종 한국 작물들을 현지에서 가져다 재배 시험을 하는 경우를 본다. 그들에게 소득 작물로 보급하겠다는 목적은 숭고하다. 다만 식생활이라는 것이 매우 보수적이라 한 나라의 식량자원을 다른 나라의 국민들이 식량으로 채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을 잘 알 터인데, 한국 작물을 해당국에 보급하겠다고 많은 비용과 인력을 들여 재배하는 것은 누군가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다.

아프리카는 미래 지구적 식량문제를 해결할 땅으로 FAO를 비롯한 유엔 기구들이 지목하고 있다. 왜냐 하면 다른 대륙에서는 이미 농업생산성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지만 아프리카는 아직 향상시킬 생산성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생산성 향상 방법까지도 이미 많은 연구가 되어 있다. 방법

1) 우리나라보다 ODA 규모가 적은 국가는 핀란드(13억 2,000만 달러), 오스트리아(11억 1,200만 달러), 아일랜드(8억 900만 달러), 포르투갈(6억 6,700만 달러), 룩셈부르크(4억 3,200만 달러), 뉴질랜드(4억 5,500만 달러), 그리스(3억 2,400만 달러) 및 2013년에 신규 가입한 아이슬란드(2,600만 달러)의 8개국뿐이다. 그러나 2012년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2011년보다 17.1% 증가함으로써 DAC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순위도 2011년의 17위에서 한 단계 상승하였다.

은 품종 개량, 수리 관개, 비료 보급으로 요약될 수 있는 과학기술 분야이다. 따라서 OECD의 DAC 회원국들은 주로 이 분야들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 같은 개도국들에게는 당장 살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경제적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가난한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이나 과학기술 지원이 더 필요하다. Niall Ferguson은 저서 『The Civilization: the West and the Rest』에서 과거 5세기 동안 서방세계가 세계를 지배한 이유는 과학기술 발전을 주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16세기 전까지 전 세계 과학기술은 중국과 사라센 문명권에서 주도했었다. 아프리카가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진정으로 도와줄 마음이 있으면 그들에게 지속성 있는 적정 과학기술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대부분의 가난한 나라들과 협력 사업을 하거나 지원 사업을 할 때에는 가장 시급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농업이 항상 앞장을 선다. 그러다 보니 농업 분야에서 주로 주곡의 증산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집중 지원하는 방법이 채택된다. 문제는 증산을 위해 어떤 방법을 보급하느냐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당사국의 환경과 농민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해 기술 및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 나라 문화를 모르고 단기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거나 지원국 입장에서 생각하는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이러한 대부분의 사업을 NGO들을 앞장세워 집행하다 보니 이들을 위한 사업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말은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한다고 하면서, 현실은 물고기를 주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우리는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 좀 더 창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수혜국 농촌의 문화와 현실을 이해하여 이에 걸맞는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소위 지속성 있는 적정기술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물이 부족한 동네에 빗물을 모아쓰는 장치를 설치하면 된다고 하여 국내에서 개발한 기술을 전혀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봉사자들이 윗사람들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받아들여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 농촌은 모두 초가집뿐이라 당황하고 있는 실정은 현실에 맞는 적정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한 가지 예이다.

오래 전에 독일의 GIZ가 한국 농촌을 돕겠다고 KIST에 거의 10년간 예산 지원을 하여 수행한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이 있다. 아마도 한국에서 외국 지원으로 수행한 과학기술연구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경우가 아닐까 생각한다. 지금은 전국 농촌에 보급되어 활용하고 있고 동남아시아에 기술 지원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농촌 실정을 이해하고 그에 적정한 지속성 있는 과학기술을 접목시킨 성공사례라 할 것이다. 이러한 과학기술 지원을 통해 수혜국의 생활을 개선시켜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ODA 사업으로서 과학기술자들이 바라는 최선일 것이다.

얼마 전부터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발전 모델에 대한 관심을 높여 왔다. 수혜국에서 지원국으로 바뀐 세계 유일의 나라라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발전의 바탕이 되어온 새마을 운동에 대한 관심도 아울러 고조되었고, 여기저기에서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가르쳐달라는 주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나라에서 배워갔고, 지금도 배우고 있다. 그

러나 우리나라에서처럼 그 효과를 뚜렷이 얻고 있는 나라는 드물다. 그 이유를 필자는 이곳 에티오피아에서 보고 있다.

에티오피아 농민들은 선진국에서 차세대 슈퍼푸드라고 부르는 고산지 곡물인 테프를 재배 수확하여 타작하고 낱알만 모아 분쇄하여 인제라라는 음식을 만들어 주식으로 소비한다. 식량 자급을 이룩하지 못해 에티오피아 정부는 증산을 강조한다. 증산을 위한 농업 기계화, 수리 관개 사업, 비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적 도움을 주면 일시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지원국의 경제적 지원이 중단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여기 현실이다. 결국 과학기술이 개입을 하여 스스로 농업 환경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정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타작은 가축들이 밟아서 하고 쟁과 낱알을 가리는 것은 농민들이 직접 쇠스랑으로 날려서 한다. 이것을 도와주려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간편한 전동 타작기나 탈곡기를 공급하면 기계는 당장 활용을 하겠지만 나중에는 방치될 것이다. 왜냐 하면 기름을 살 돈도 없고 전기도 잘 안 들어오기 때문이다. 결국 현지의 문화와 형편을 고려한 적정 과학기술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것도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 ODA 지원 사업은 수혜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들의 환경과 문화에 맞는 적정 과학기술이 접목되어야지, 단순한 경제적 지원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STEP1!!!